

弓裔의 出生과 成長

趙 仁 成

- I. 머리말
- II. 弓裔의 出生

- III. 弓裔의 僧侶時節
- IV. 맺음말

I. 머 리 말

이른바 後三國時代를 주도했던 인물로 甄萱과 궁예 그리고 궁예의 뒤를 이은 王建을 드는데 별 이의가 없을 줄 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인물을 꼽자면 그것은 바로 궁예일 것이다. 궁예가 신라의 버림 받은 왕자였으며, 승려로 입신하여 한때 후삼국 중 가장 강했던 정권을 세웠고, 彌勒佛을 자칭하였던 사실 등은 흥미를 끄는 대목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궁예의 출생과 성장 과정 등에 대한 기왕의 관심 역시 적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성과를 놓고 볼 때 그렇게 만족스럽다고만은 여겨지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연구들은 관계 사료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토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그 점에 유의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관해 생각해보려고 한다.

우선 궁예의 출신과 성장을 전하고 있는 『三國史記』 50 궁예전의 해당 기사를 다시 검토하려고 한다. 그를 토대로 한다면 궁예의 출신에 대해 기왕의 논의와는 달리 생각해볼만한 대목이 있을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궁예의 승려시절에 관해 다루게 될 것이다. 거기에서는 특

히 궁예가 어떠한 불교사상에 매력을 느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보려고 한다. 만약 본고에서의 논의가 궁예의 세력형성과 궁예정권에 대한 앞으로의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II. 弓裔의 出身

(1) 弓裔王子說의 檢討

궁예의 출신과 성장에 대하여 『삼국사기』 50 궁예전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가1) 新羅人 姓金氏 考第四十七憲安王諱靖 母憲安王嬪御 失其姓名 或云四十八景文王膺廉之子 以五月五日生於外家 其時屋上有素光 若長虹上屬天 日官奏曰 此兒以重午日生 生而有齒 且光焰異常 恐將來不利於國家 宜勿養之 王勅中使 抵其家殺之 使者取於襁褓中 投之樓下 乳婢竊捧之 誤以手觸 眇其一目 抱以逃竄 劬勞養育
(2) 年十餘歲 遊戲不止 其婢告之曰 子之生也 見棄於國 予不忍 竊養以至今日 而子之狂如此 必爲人所知 則子與子俱不免 爲之奈何 弓裔泣曰 若然則吾逝矣 無爲母憂 便去世達寺 今之興教寺是也 祝髮爲僧 自號善宗

(3) 及壯不拘檢僧律 軒輊有膽氣 嘗赴齋 行次有烏銜物 落所持鉢中 視之 牙籤書王字 則秘而不言 頗自負 見新羅衰季 政荒民散 王畿外州縣叛附相半 遠近群盜蜂起 鐵聚 善宗謂乘亂聚衆 可以得志 以眞聖王即位五年大順二年辛亥(891) 投竹州賊魁箕萱

위 (가1) · (2) · (3)은 논의의 편의상 필자가 나누어본 것이다. 그 중 (가1)에는 궁예의 가계와 태어나자마자 죽을 뻔한 이유, 구사일생하게 된 경위가 나오고 있다. (가2)는 궁예가 출가한 까닭에 관한 것이고, (가3)은 그의 승려시절의 일면을 전하고 있다.

이중 먼저 (가3)에 궁예가 ‘王’자가 쓰여진 접대를 받았다고 한 것에 주목하는 것이 좋을 듯싶다. 그것은 궁예가 본래 하늘로부터 왕이 될 자격을 받았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하여 후대에 궁예나 그의 측근들이 꾸며낸 것이 분명하다. 한편 그것은 (가1)의 궁예왕자설과도 관계되는 것이

라고 여겨진다. 즉 궁예가 본래 신라의 왕자라는 사실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을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이다.¹⁾

여기서 궁예왕자설이 이와 마찬가지로 꾸며졌을 가능성을 따져보아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된다.²⁾ 그를 전하고 있는 (가1)에 대한 검토에 앞서 먼저 (가2)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유익할 듯하다.

그에 따르면 궁예는 10 여세 때에야 비로소 (가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자신의 처지를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는 乳婢가 궁예에게 그가 왕자라는 사실이 밝혀지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이나 궁예가 유비를 어머니로 불렀다는 것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그러하다. 아울러 그를 통해 궁예가 왕자출신이라는 사실이, 이후 상당 기간 숨겨져야만 하는 것이었음도 헤아려볼 수 있다. 따라서 궁예의 출생과 그가 구사일생하게 된 경위가 (가1)과 같이 알려진 것은 후대 어느 시기에 궁예나 그 측근들에 의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 1) 따라서 이 사료에 대하여 “그중에 비록 설화적 요소가 있긴 하지만, 궁예가 일찍부터 정치적 뜻을 가지고 있었고”라고 한 것(申虎澈, 「弓裔의 政治的 性格—특히 佛敎와의 關係를 中心으로—」, 『韓國學報』 29, 1982, p. 37), “당시 세달사에는 궁예가 왕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그로 하여금 반란을 일으켜 왕이 되어 보라고 부추기는 세력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추측하게 한다”고 한 것(鄭淸柱, 「弓裔와 豪族勢力」, 『全北史學』 10, 1986, p. 11), “일찍부터 세상을 광정할 야심과 자부심을 갖고 있으면서 훗날에 실천할 신국가건설을 위한 준비활동을 활발히 벌였던 것을 짐작하게 한다”고 한 것(崔圭成, 「弓裔政權의 性格과 國號의 變更」, 『鮮明女子大學論文集』 19, 1987, p. 290) 등은 소박한 해석이라고 생각된다. 궁예가 세달사 시절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료를 통해 그를 알 수 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 것이다. 승려 궁예의 정치적 야심에 대해서는 궁예의 미륵신앙 등에 대한 관심을 다른 본고의 뒷부분을 참고하라.
- 2) 일반적으로 궁예는 왕위계승전에 희생된 왕자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컨대 李基白, 『韓國史新論(개정판)』, 1976, p. 121. 한편 최근에는 궁예가 憲安王과 景文王 중 누구의 아들인가를 밝히려는 노력이 적지 않다. 신호철이 앞의 논문, pp. 33~36에서 궁예를 경문왕의 아들로 본 이후 李貞信(「弓裔政權의 成立과 變遷」, 『鄭在覺記念 東洋學論叢』, 1984, pp. 40~41)과 吳永淑(「泰封國形成과 弓裔의 支持基盤」, 淑明女子大學敎大學院 석사학위논문, 1985, pp. 4~14)이 그를 따랐고, 이와 달리 정청주는 앞의 논문, pp. 2~7에서 궁예를 현안왕의 왕자로 생각하였다.

그리고 궁예가 왕자라는 사실은, 당시에는 물론이고 고려시대에도,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아진다. 『삼국사기』 찬자들이 궁예가 현안 왕과 경문왕 중 누구의 아들인지 확정하지 못했던 것((가1))이나 『삼국사기』 본기에 궁예의 출생에 관한 기사가 전혀 나오지 않았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그를 알려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만약 (가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왕자가 實在하였다고 하더라도 장성한 애꾸눈의 궁예가 과연 그 왕자인지는 어느 누구도 알아볼 수 없었을 것으로 여겨진다.³⁾ 그렇다면 이제 궁예왕자설은 일정한 정치적 목적하에 궁예와 그 측근들이 조작한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지 않을까.⁴⁾

그 정치적 목적과 관련하여서는 궁예가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이유에 눈을 돌려보는 것이 유익할 듯싶다. (가1)을 보면 궁예가 ‘重午(五)日’에 태어난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로 되어 있다. 그런데

(나) 風俗通云 俗說五月五日生子 男害父 女害母也(『史記』孟嘗君傳 所引 索隱)

이라고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중오일생이 부모를 해치는 것으로 믿는 풍습이 중국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太平御覽』 등에서는 중오일생을 기피하여 그를 버리는 경우를 적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⁵⁾ 하지만 우리 나라에서는 궁예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런 예를 찾아볼 수 없다.

한편 日官이 궁예가 중오일생이라는 것 등을 들어 궁예가 앞으로 국가

3) 필자는 (가1)에 나오는 것과 같은 왕자의 실재를 부정하는 입장이다. 단 신라 하대의 왕위계승전을 염두에 두면 그러한 왕자가 있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을 듯싶다.

4) 『帝王韻記』 下 後高句麗 條에는

羅王景文王生庶子 齒有兩重 舍付擊 相是害君 乃放逐

이라고 하여 궁예가 경문왕의 서자로 되어 있다. 아울러 버림받은 이유도 (가1)과는 다르다. 그렇다면 李承休가 참고한 자료가 『삼국사기』와는 다른 것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예가 어릴 적에 쫓겨난 것은 다름가지이다. 따라서 『제왕운기』에 나온 경문왕자설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따를 수 없다고 생각된다.

5) 예컨대 『太平御覽』 31 時序部 五月五日 條.

에 불리할 것이라고 하였다는 것은 궁예의 반역을 예언한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다1) 天復元年辛酉(901) 善宗自稱王 謂人曰 往者新羅請兵於唐 以破高句麗 故平壤舊都 菊爲茂草 吾必報其讐 蓋生時見棄 故有此言 嘗南巡至興州浮石寺 見壁畫新羅王像 發劍擊之 其刀迹猶在(『삼국사기』 50 궁예전)

(2) 善宗以強盛自矜 意欲並吞 令國人呼新羅爲滅都 凡自新羅來者 盡誅殺之(동상)

에서 보듯이 궁예가 신라와 신라 왕실에 대해 상당한 적개심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왜냐하면 궁예가 중오일생이라는 것은 결국 궁예의 반신라적 행동을 숙명적인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궁예를 중오일생의 왕자라고 조작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궁예의 반신라적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아려보게 된다.⁶⁾ 그리고 그 이외에도 궁예왕자설은 궁예에게 권위와 정통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였을 것이다. 또 그를 내세워 반신라적 세력을 포섭하려고 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⁷⁾

(2) 沒落한 眞骨貴族出生 弓裔

위의 논의가 인정된다면 앞의 사료 (가1)은 물론 (가2)·(3)도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것이 된다. 하지만 그것들이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는 생각

6) 이와 관련하여, 그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洪淳熙가 “이 설화는 신라 왕실에 그 出自를 구하고 있는 건원의 경우와 같이, 궁예도 자기의 출자를 고귀 신성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수식이라고” 생각되나, 그보다도 그의 反新羅叛亂의 당위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조작한 설화라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다. 즉 설화는 그의 狂的인 반신라적 태도와 신라왕조에 대한 불타는 복수심을 소설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복선이 아니었을까.”라고 한 것(『變革期の 政治와 宗教—後三國時代를 中心으로—』, 『人文研究』(嶺南大) 2, 1982, pp. 227~228)이 참고된다. 한편, 궁예의 경우를 제외하고 중오일생을 기피하는 풍습을 우리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 궁예가 왕자 출신이라고 하면서도 특히 중오일생임을 내세운 것은 당시의 유식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고 해아려진다.

되지 않는다. 거기에는 실제 상황이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궁예의 진정한 출신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다음을 검토하는 것이 유익할 것으로 생각된다.

(라) 詔曰 前主當四郡土崩之時 剷除寇賊 漸拓封疆 未及兼並海內 俄以酷暴御衆 以姦回爲至道 以威侮爲要術 徭煩賦重 人耗土虛 而猶宮室宏壯 不遵制度 勞役不止 怨讟遂興 於是 竊號稱尊 殺妻戮子 天地不容 神人共怒 荒墮厥緒 可不戒乎(『高麗史』1太祖 원년 6월 丁巳)

위 (라)는 왕건이 즉위 다음 날 내린 조서의 일부로 궁예의 치세를 비난하고 있다. 그런데 그중 왕자가 아닌 궁예가 왕자를 자칭하였던 사실에 대한 비난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위 (라) 외의 다른 곳에서도 그런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이는 당시에 도 궁예왕자설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궁예왕자설이 사실이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앞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궁예가 왕자를 자칭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일 것이라는 점을 떠올리게 된다. 이점에서 궁예왕자설은 신라 하대의 치열한 왕위계승전을 계산에 넣

- 7) 한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왕건은 궁예와 달리 친신라정책을 견지했다. 그렇다면 궁예가 宗國이라고 할 수 있는 신라에 적대적이었던 사실도 왕건이 비난하였을 법하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전하고 있는 사료에서는 그러한 내용을 전혀 찾을 수 없다(예컨대 다음의 사료 (라) 참고). 그렇다면 최규성이 앞의 논문, pp. 289~290에서 “그러나 전해진 내용이 지나치게 소략하고 산만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그의 가계의 시작부터 착오가 있고 출생 과정에 지나치게 극적인 요소가 많은 것은 인위적 조작에 의한 결과임을 바로 짐작할 수가 있다. 고려 초에 궁예의 역사를 기록할 때 반역자 폭군에다가 쫓점을 맞추었다면 반역자다운 출생과 가계의 혼란은 당연한 귀결로 나타났을 것이다.”라고 한 바와 같이 궁예 왕자설이 고려 초에 조작된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다1)·(2)에 나온 궁예의 적대적인 對新羅觀내지 對新羅政策이 사실로 인정된다면 궁예가 신라의 버림받은 왕자를 자칭한 것이 고려 초에 조작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궁예로서도 자신의 그러한 행위를 설명할 근거를 갖고 있었을 것이고, 그것 중의 하나가 바로 버림받은 왕자설이라고 해야하지 않을까 때문이다.

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가1)에 나오는 바와 같은 왕위계승전의 희생자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조작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한편 궁예왕자설이 전혀 터무니없는 것만은 아니었다고도 생각하게 된다. 궁예가 신라 왕실과 모종의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을까 추측해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고려 초까지 궁예의 왕자 자칭이 사실로 받아들여졌을 리가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견훤이 먼 조상으로 眞興王을 설정한 것⁸⁾이나 始祖 虎景이 “自號聖骨將軍”하였다⁹⁾고 하여 왕건이 자기 가계를 신라 왕실에 연결시키려고 한 것¹⁰⁾과는 달리 궁예가 바로 자기 자신을 왕자로 설정한 것도 그를 알려주는 것으로 해아려보는 것이다.

이점을 염두에 두면 다음 사료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마) 大德慈藏金氏 本辰韓眞骨蘇判(三級爵名)茂林之子 (중략) 及誕 與釋尊同日 名善宗郎(『三國遺事』4 義解 慈藏定律)

위 (마)에 따르면 자장의 이름은 선종랑이었다고 한다. 그중 ‘郎’은 일종의 접미어로 여겨진다. 따라서 자장의 생일이 석존의 그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은 선종인 셈이 될 것이다. 그런데 앞의 (가2)에 보면 궁예가 ‘自號善宗’하였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현재 궁예의 생일은 알 수 없다. 하지만 궁예가 자장과 마찬가지로 석존과 같은 날 태어난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궁예의 선종이라는 법호는 자장의 이름을 딴 것이 아닐까. 그리고 굳이 선종이라고 스스로 법호를 정한 것은 궁예가 자신의 신분이 원래 진골이었음을 의식한 때문은 아니었을까.

여기서 앞의 (가1)에 ‘弓裔新羅人 姓金氏’라고 한 것은 사실이었을 것

8) 『三國遺事』2 後百濟 甄萱 條 所引「李碑家記」.

9) 『高麗史』高麗世系 所引 金寬毅『編年通錄』.

10) 河炫綱, 「高麗太祖와 開城」, 『李弘植紀念論叢』, 1969, p. 130.

으로 짐작해 본다. 그리고 궁예가 본래 중앙의 진골귀족 출신이 아니었을까 해야려 본다. 이제 (가2)를 검토함으로써 궁예의 출신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2)에 궁예가 성장한 곳이 서울이 아닌 지방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렇다면 궁예의 집안은 대체로 궁예 출생 이전에 이미 낙향한 것이 아닌가 해야려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낙향한 진골귀족들이 지방에 일정한 기반을 갖고 호족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있었음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하지만 그와는 달리 완전히 몰락하는 경우도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¹¹⁾ 궁예의 집안은 이에 해당될 것으로 여겨진다. 왜냐하면 앞의 (가2)를 보면 궁예의 소년시절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였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이 조작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궁예의 집안은 궁예 이전에 이미 경제적으로도 몰락하였던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을 것이다.¹²⁾

Ⅲ. 弓裔의 僧侶時節

앞의 (가2)·(3)에 궁예가 10여세에 출가하여 壯年에 이르도록 상당 기간 승려였다고 한 것은 사실일 것이다. 그리고

11) 다음에 보이는 利嚴의 경우가 그러하다고 여겨진다.

大師法諱 利嚴 俗姓金氏 其先鷄林人也 考其國史 實星漢之苗 遠祖世道凌夷 斯廬多難 偶隨萍梗 流落熊川 父章深愛雲泉 因寓富城之野 故大師生於蘇泰(崔彥謨, 「須彌山眞嚴大師寶月乘空塔碑」, 937; 『朝鮮金石總覽』 상, p. 126)

12) 지금으로서는 궁예의 집안이 몰락하게 된 이유를 잘 알 수 없다. 그런데 하대의 왕위계승전을 떠올리면 궁예 선대에 왕위계승전에서 패퇴한 때문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한다. 앞의 (다1)·(2)에서 보듯이 궁예의 대신라관이나 대신라 정책이 상당히 적대적이었던 점에 이르는 것은 그럴 듯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궁예왕자설은 하대 왕위계승전을 전제로 조작된 것으로 보인다. 즉 궁예는 자신을 왕위계승전의 희생자로 알아 주기를 기대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점에서 오히려 궁예 집안은 왕위계승전과 무관하게 몰락하였을 것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해야려지기도 한다.

(바) 善宗自稱彌勒佛(중략) 又自述經二十餘卷 其言妖妄 皆不經之事 時或正座 講說 僧釋聰謂曰 皆邪說怪談 不可以訓 善宗聞之 怒 鐵椎打殺之 (『삼국사기』 50 궁예전)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후에 궁예는 미륵불을 자칭하였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경전을 짓고 강설도 하였다고 전하고 있다. 이 경전이나 강설에는 궁예가 下生한 미륵불이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을 것임에 분명하다. 그렇다면 궁예는 미륵신앙을 비롯한 불교 전반에 대한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이 상당 기간에 걸친 그의 승려 생활에서 터득되었을 것임도 헤아려보게 된다.¹³⁾ 따라서 궁예의 승려 시절에 대한 검토는 궁예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 出家의 動機와 華嚴修學

앞의 (가2)를 보면 궁예가 출가하게 된 것은 결국 왕자신분을 드러낼 만한 그의 ‘遊戱’ 때문이었던 셈이 된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궁예가 왕자였다고는 생각되지 않으므로 ‘유희’를 그렇게 볼 수 없다. 여기서 궁예의 소년시절이 경제적으로 곤궁하였을 것이라는 앞서의 논의를 떠올리면 다음 사료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

(사) 及大師往化數年 有山魃爲野冠者 始敢拒輪 終能食菓 得非深劑定水 預潑魔山之巨力歟(崔致遠, 「鳳岩寺智證大師寂照塔碑」, 893; 『朝鮮金石總覽』 상, p. 94)

위에 나오는 ‘山魃’은 유이민일 것이다. 그리고 ‘野冠’은 지방의 도적으로 보아 좋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 따르면 도적들이 승려가 된 것은 佛法에 감화받은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경제적 곤궁을 벗어나고자

13) 위 (바)에 나오는 석종의 비난으로 미루어 궁예의 경전과 강설은 기존 불교의 그것과 내용을 크게 달리하였을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점에서 종래 궁예의 불교사상을 부정적인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궁예가 불교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그가 20여권에 달하는 경전을 ‘自述’하고, 더우기 강설을 할 수 있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출가하였을 것이다. 그들이 유이민이 되고 다시 도적이 된 것 역시 마찬가지 이유에서였을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에 비추어 궁예의 출가를 일단경제적 곤궁에 말미암았으리라고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¹⁴⁾

하지만 궁예가 몰락하기는 하였지만 진골귀족출신이었을 것이라는 앞서의 논의를 떠올리면 궁예의 출가 동기를 그렇게만 볼 수는 없을 듯싶다. 이와 관련하여 궁예가 출가한 사원이 世達寺라는 사실이 주목된다.

세달사와 관계되는 인물로는 神琳과 質應 그리고 調信을 들 수 있다. 均如가 지은 『十句章圓通記』에 ‘世達寺沙門神琳’이라고 되어 있음에서 義湘의 法孫으로 ‘浮石矯孫’이라고 일컬어지던 신림이 한때 세달사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십구장원통기』를 보면 질응은 신림의 제자로 세달사에서 起信論을 강의하였다고 한다. 세달사 소속의 莊舍의 책임자였던 조신은 당시 △(태)수 金旰의 딸을 사모하여 의상이 창건한 洛山寺의 관음보살에게 그녀와 맺어지기를 빌었다고 한다(뒤의 사료(자1)). 따라서 세달사는 華嚴宗의 중요한 사찰이었음을 알 수 있다. 義天이 〈興敎寺禮神琳祖師影〉(『大覺國師文集』 18)이라는 讚을 쓴 것을 보면 세달사는 고려시대에도 화엄종에 속해 있었으며, 이로 미루어 궁예 당시도 역시 그러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¹⁵⁾

14) 홍순창은 궁예가 세달사로 도주하여 그곳을 은신처로 이용하였다고 하였다. 앞의 논문, p. 228. 이로 보건대 홍순창은 궁예가 범죄자였을 것으로 예상한 듯한데, 아마도 (가 2)에 나오는 유희를 범죄 행위로 본 것으로 여겨진다. 궁예가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였음을 고려하면 그가 일찌기 위(사)에 나오는 도적과 같은 범죄자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다 아는 사실이지만, 다음에서 보듯이 신라 하대 도적의 출현과 농민 반란은 우선과 중한 수취에 대한 반발이었던 것이다.

國內諸州郡不輸貢賦 府庫虛竭 國用窮乏 王發使督促 由是 所在盜賊蜂起 於是 元宗·哀奴等 據沙伐州叛(『삼국사기』 진성여왕 3년)

하지만, 곧 언급하겠지만, 궁예가 출가한 후 수도승으로 화엄에 몰두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그가 도적출신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도적 출신으로 수도승이 되는 경우가 없지는 않았겠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았을 것으로 헤아려보는 것이다.

15) 이상에서 신림과 질응에 대한 것은 金相鉉, 「新羅 華嚴學僧의 系譜와 그 活動」, 『新羅文化』 1, 1984, pp. 55~56 및 p. 59.

한편 앞의 (가3)에 따르면 궁예는 장년이 된 후 계율에 구애받지 않는 등 승려로서는 색다르다고 할 수 있는 행동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승려였던 궁예가 891년 기원에게 가는 것을 계기로 이제 이른바 후삼국시대의 혼란기에 직접 뛰어들게 되었음을 고려하면 그것은 어느 정도 사실일 것으로 여겨진다.

그렇다면 출가한 후 장년에 이르기까지 궁예는 오히려 계율에 충실한 승려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이른바 계율종의 開祖라고 일컬어지는 자장의 이름으로 자신의 법호를 삼았다는 것은 일면 이를 알려주는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이다. 이점에서 궁예가 일단 계율을 존중하는 화엄승이었다고 할 수 있을 듯싶다. 이는 넓은 의미에서 자장을 화엄종 승려로 볼 수 있음¹⁶⁾을 떠올릴 때 더욱 그림직하게 여겨진다.

그런데 이처럼 궁예가 화엄종 사원인 세달사에서 출가하여 화엄에 몰두하였던 것은 우연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는, 익히 아는 바이지만, 궁예와 비슷한 처지의 신라 하대 선사들이 처음 화엄종 승려로 출발하였던 사실을 염두에 둘 때 그러하다. 그렇다면 궁예가 화엄종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한 해답이 곧 그의 출가 동기가 될 것이다.

불교사상에 어두운 필자로서는 이를 갑자기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화엄종은 신라 왕실과 진골귀족을 중심으로 크게 유행하였다. 따라서 궁예가 화엄종 사찰인 세달사에서 출가하고 한동안 화엄에 몰두한 것은, 이미 몰락하였다고는 하지만, 가문의 영향이었을 것이다. 즉 아직까지 궁예는 자신이 진골귀족에서 몰락하였다는 사실보다는 본래 진골귀족이었다는 것에 더 집착하고 있었던 것으로 헤아려보는 것이다. 아울러 그가 자장의 이름으로 자신의 법호를 삼은 것도 이와 무관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

16) 金煥泰, 『『三國遺事』에 보이는 華嚴思想』, 『韓國華嚴思想研究』, 1982, pp. 25~28.

(2) 眞表系 彌勒信仰과 圖讖說・風水地理說에의 傾倒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하대 선사들은 대부분 화엄에서 선종으로 개종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그들은 대부분 중앙귀족으로부터 유탁하여 지방에 토착하게 된 사람들이거나 지방의 피지배층 안에서 새로 등장하는 6두품 이하의 신분층이었다고 한다.¹⁷⁾ 즉 몰락한 진골귀족이나 6두품 이하의 출신자들이 왕실이나 중앙귀족을 그 사회적 기반으로 하고 있었던 당시까지의 교종불교의 전통적인 권위에 대하여, 반성하고 반항하는 성격을 가진 선종 승려가 되었다는 것이다.¹⁸⁾ 이점에서 몰락한 진골귀족 출신이었던 궁예 역시 화엄종에 계속 매력을 느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궁예는 어떠한 불교사상에 끌렸을까 궁금해진다. 우선 궁예도 하대의 선사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선종에 관심을 가졌을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다. 곧 살펴보게 될 것이지만 세달사가 위치한 영월지역은 궁예 당시 이른바 선종 9산중의 하나인 龜山門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이다.¹⁹⁾ 하지만 궁예는 앞의 사료(바)에서 알 수 있듯이 그보다는 특히 미륵신앙에 끌렸다고 생각된다. 우선 당시 궁예가 관심을 가졌던 미륵신앙이 어떠한 성격의 것이었는지를 생각해보기로 하자.

(아) 滴過溟州蟹縣嶺 大兒十五歲者忽餓死 痛哭收瘞於道 (중략) 方分手進途而形開 (중략) 歸擬蟹峴所埋兒 乃石彌勒也 (『삼국유사』 3 塔像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위 사료 (아)에 나오는 조신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달사의 승려였다. 그런데 위를 보면 조신이 꿈에 묻은 아이가 돌미륵이었다고 한다. 이 사실이 갖는 종교적 의미는 별도로 생각되어야겠지만 적어도 그를 통

17) 崔柄憲, 「新羅下代 禪宗九山派의 成立 - 崔致遠의 四山碑銘을 中心으로 -」, 『韓國史研究』 7, 1972, pp. 101~105.

18) 위와 같음, pp. 83~87.

19) 金杜珍, 「新羅下代, 龜山門의 形成과 그 思想」, 『省谷論叢』, 17, 1986, p. 305. 단 궁예가 자장의 이름으로 법호를 사용한 것으로 미루어 세달사는 궁예 당시에도 여전히 화엄종 사원이었을 것이다.

해 조신이 미륵신앙과 관련되고 있다고 보아 무리가 없을 것이다.²⁰⁾ 여기서 다른 세달사 승려들 중에도 조신과 마찬가지로 미륵신앙에 관련되는 경우가 있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된다.

그렇다면 그 미륵신앙의 성격은 어떠한 것이었을까. 위 (아)를 보면 그가 석미륵을 발견한 것은 명주의 蟹縣嶺(蟹嶺)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다음의 사료 (자1)에 따르면 조신은 낙산사 관음보살상에 나아가 김혼의 딸과 맺어지기를 빌었다고 한다.

그런데 낙산사와 명주를 포함한 강원도 해안 지방은 眞表의 포교 지역이었다.²¹⁾ 그리고 그곳에는 신라 말까지도 진표계 미륵신앙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龜山祖師 梵日이 正趣菩薩像을 얻고 簡子를 만들어 創寺할 곳을 점쳐서 불전을 짓고 그 상을 모신 것²²⁾은 바로 진표계 미륵신앙에서 중요시되었던 占察法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²³⁾ 그리고 범일의 제자인 開淸이 普賢山寺를 하필 地藏禪院으로 개명한 것²⁴⁾도 그와 무관하지 않다고 해야려진다. 왜냐하면 진표계 미륵신앙에서는 지장보살을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이다.²⁵⁾ 이처럼 하대에까지 명주지역에 진표계 미륵신앙이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면 조신의 미륵신앙은 진표 이래의 그것이었을 것으로 보아 무방할 듯싶다.

한편 세달사도 진표계 미륵신앙의 영향권에 들어간다고 생각된다. 앞의 (가2)를 보면 당시의 세달사는 고려시대 興敎寺였다. 그 遺址가 현 寧越

20) 金南允, 「新羅 中代 法相宗의 成立과 信仰」, 『韓國史論』(서울대) 11, 1984, p. 127의 주 96).

21) 『삼국유사』 4 義解 眞表傳簡 및 關東楓岳鉢淵藏石記.

22) 동상 3 塔像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23) 김남윤, 앞의 논문, p. 146. 그는 범일의 행위가 “心地가 簡子를 가지고 中岳에 돌아가서 산 위에서 간자를 던져 창사할 곳을 점쳤던 것과 같은 방법이다.”라고 하고, “참회와 실천을 중심으로 했던 진표계 범상종이 禪風과 크게 배치되지는 않았으리라는 점을 생각하게 해준다. 또한 진표계 범상종은 지방에서 시작되어 각 지방으로 퍼졌던만큼 下代에도 그 敎團은 그대로 유지되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24) 崔彥弼, 「地藏禪院朗圓大師悟眞塔碑」, 940; 『朝鮮金石總覽』 상, p. 142.

25) 김남윤, 앞의 논문, pp. 139~140.

郡 南面 興越里 興教洞 大華山에 있다.²⁶⁾ 그리고 다음을 통하여 당시 세달사의 사회경제적 배경의 일단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자1) 昔有新羅京師時 有世達(=達 필자 주)寺(今興教寺也)之莊舍 在溟州榛李郡(按地理志 溟州無榛李郡 唯有榛城郡 本榛生郡 今寧越 又牛首州領縣有榛靈郡 本榛已郡 今剛州 牛首州今春州 今言榛李郡 未知孰是) 本寺遺僧調信爲知莊 信到莊上 悅△守金昕公之女 惑之深 屢就洛山大悲前 潛祈得幸 方數年間(『삼국유사』 3 塔像 洛山二大聖觀音·正趣·調信)

(2) 開成己未(839)閏正月 爲大將軍 領軍十萬 禦清海兵於大丘 敗績 自以敗軍 不復仕宦 入小白山 葛衣蔬食 與浮圖遊 至大中三年(849)八月二十七日 感疾 終於山齋 享年四十七歲 以其年九月十日 葬於奈靈郡之南原 無嗣子 婦人主喪事 後爲比丘尼(『삼국사기』 44 金陽傳 附 金昕傳)

위 (자1)에 의하면 세달사는 명주 榛李郡에 莊舍를 두고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一然이 注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명주에 나이군은 없었다. 그런데 (자2)를 보면 김흔은 죽은 후 奈靈郡에 묻혔다고 한다. 나령군은 지금의 榮州이므로 그가 은거하면서 승려들과 교류하였고, 임종을 맞은 산재가 위치하였다고 생각되는 小白山은 현재의 소백산일 것이다. 그리고 김흔이 소백산에 은거한 것은 그가 소백산과 일정한 연고를 갖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조신이 세달사 장사의 책임자로 부임

26) 『東國輿地勝覽』을 보면 홍교사는 13 경기도 開豐郡 豐德 佛宇 條와 46 강원도 영월군 불우 조에 나오고 있다. 李丙瀾는 『國譯 三國史記』, 1983, p. 714에서 견자를 따왔고, 최규성도 이를 따르면서 후에 궁예가 경기도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것은 승려 시절을 그 지역에서 보낸 때문이라고 하였다. 앞의 논문, p. 290. 그리고 최근 김두진도 그를 따른 바 있다. 앞의 논문, p. 305의 주 25). 그런데 위의 사료 (파1)을 보면 궁예가 양길의 휘하에서 酒泉·奈城·鬱烏·御珍 등을 공략했다고 한다. 주천은 현재의 영월군내, 나성은 영월, 울오는 평창, 어진은 울진에 각각 비정된다. 오영숙, 앞의 논문, pp. 17~19. 그렇다면 양길이 궁예로 하여금 이 지역을 정복하도록 한 이유중의 하나는 궁예가 그 지역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리고 궁예가 이들 지역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것은 그가 이 지역에서 승려 생활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이점에서 세달사는 영월에 있었던 것으로 보는 설(신호철, 앞의 논문, p. 37 및 정청주, 앞의 논문, p. 8)을 따른다. 한편 그 유지는 鄭永鎬 등이 답사한 바 있다. 『考古美術』 8~4, 1967 및 정영호, 「新羅 獅子山 興寧寺址 研究」, 『白山學報』 7, 1969, p. 27의 주 3).

하였을 때 榛李郡의 △(太?)守가 김혼이었다는 점(자1)²⁷⁾이 주목된다. 즉 김혼은 나이군 태수를 지낸 것을 인연으로 소백산에 은거한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조신이 관장하였던 장사가 위치하였다는 나이군은 나령군 곧 榛已郡이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즉 (자1)의 명주는 朔州의 잘못인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²⁸⁾ 이와 같이 보면 궁예 당시에 세달사는 영월 일대는 물론 소백산맥을 넘어 영주에까지 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진표는 金山寺에서 출발하여 俗離山을 거쳐 명주 등에서 포교하고 金剛山에서 죽은 것으로 되어 있다.²⁹⁾ 그리고 그 제자들은 경주 지역을 제외한 지방에서 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³⁰⁾ 그중에서도 진표의 미륵신앙은 속리산의 永深에서 中岳(八公山)의 心地에게로 이어진 것으로 전하고 있다.³¹⁾ 그렇다면 이제 속리산과 명주의 사이에 위치하였다고 여겨지는 세달사와 그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은 진표 이래 진표계 미륵신앙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헤아려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가 인정된다면 궁예의 미륵신앙은 진표계의 그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궁예가 하대의 선사들과는 달리 진표계 미륵신앙에 매력을 느낀 이유가 무엇이였을까 궁금해진다.

이와 관련하여 궁예가 기원에게 간 것((가3))이 주목된다. 그것은 궁예가 기원의 세력에 의지하고자 함이기도 하였겠지만 그보다는 그의 세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우려는 목적에서였을 것으로 헤아려진다. 이 점을 염두에 두면 앞의 (가3)에 그가 혼란을 틈타 무리를 모으려고 하였

27) (자1)의 △는 '太'일 것이다. 그리고 (자1)의 김혼과 (자2)의 김혼은 동일 인물일 것이다. 이기백, 「新羅淨土信仰의 다른 類型들」, 『新羅思想史研究』, 1986, p. 164의 주 5) 및 주 6).

28) 신호철(앞의 논문, p. 38), 정청주(앞의 논문, pp. 8~11) 및 김두진(앞의 논문, p. 305) 등은 (자1)의 榛李郡을 영월일 것으로 추측하였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따르지 않는다.

29) 『삼국유사』 4 義解 眞表傳簡 및 關東楓岳鉢淵藪石記.

30) 김남윤, 앞의 논문, pp. 134~135.

31) 『삼국유사』 4 義解 關東楓岳鉢淵藪石記 및 心地繼祖.

다는 것이 어느 정도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미륵신앙이 일면 현실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런데 특히 진표는 이 지상에 이상국가를 건설할 것을 꿈꾸었다고 한다.³²⁾ 그리고 그것이 反新羅의인 성향을 갖고 있었음도 지적되고 있다.³³⁾ 아울러 진표가 중요시하였던 참회와 점찰법이 민간에 받아들여지기 쉬운 것이었다는 점에서 일반 백성들로부터도 적지 않은 호응을 받았으리라고 여겨지고 있다.³⁴⁾ 뿐만 아니라 반신라적인 지방의 유력자들로부터도 환영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³⁵⁾

그렇다면 이제 궁예가 선종 대신 진표계 미륵신앙에 끌린 이유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여겨진다. 즉 궁예는 종교적 차원에서 기존 질서에 대항하는 것보다는 신라 말의 혼란과 진표계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반신라적인 세력을 규합하고 그를 토대로 그 자신이 직접 기존 질서에 대항하려고 했던 것으로 헤아려지는 것이다.³⁶⁾

32) 이기백, 「眞表의 彌勒信仰」, 『新羅思想史研究』, 1986, p. 273.

33) 이기백, 앞의 논문, p. 274~276.

34) 김남윤, 앞의 논문, p. 135 및 p. 147.

35) 이기백, 앞의 논문, p. 272. 특히 주 11) 참고.

36) 이와 관련하여 김두진이 궁예가 “자신을 미륵으로 표현한 것은 미신적이었 다기보다는 그만큼 더 彌勒尊에 대한 希求가 절실함에서 나왔을 것이다. 法相宗의 主尊인 미륵불은 來世佛로서, 理想世界의 지향을 위한 현실을 개혁 하려는 성향을 지녔다. 신라 하대의 혼란을 틈타 새로운 국가사회의 건설을 꿈꾸어온 궁예가 자연 이러한 미륵신앙에 매혹되었을 것이다.”라고 한 것은, 궁예가 미륵을 자칭한 사실을 설명한 것이지만, 본 논의와 관련하여서도 사 사하는 바 크다. 「高麗 初의 法相宗과 그 思想」, 『韓祐勳紀念 史學論叢』, 1981; 同 改稿, 「『性相融會』 思想 成立의 思想的 背景—고려 초의 법상종 과 그 사상—」, 『均如華嚴思想研究—性相融會思想—』, 1983, pp. 116~117. 단 김두진은 궁예의 미륵신앙을 太賢系로 보고 있는 듯하다. 앞의 논문, pp. 117~118. 물론 궁예가 태현계 미륵신앙에 대해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태현계 미륵신앙이 진표계 미륵신앙에 비하여 주로 경주를 중심으로 신라왕실과 진골귀족들 사이에서 성행하였으며, 토착신앙과 습합되기 쉬운 점찰법과 참회의 실천 대신 난해한 유식학 연구를 중요시하였음을 보면 (이 상 김남윤, 앞의 논문, pp. 141~146) 적어도 세달사 시절의 궁예를 태현계 미륵신앙과 연결시키기는 곤란할 듯싶다. 이점에서 오히려 이기백이 “진표의 활동 영역이 속리산·명주·금강산에 미쳐 있었고, 이것은 궁예의 활동 영역과

한편 궁예는 진표계 미륵신앙 외에 도참설과 풍수지리설에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여겨진다.

(차1) 弓裔稱王(『삼국사기』 12 孝恭王 5년)

(2) 弓裔設百官 依新羅制(所制官號 雖因羅制 多有異者) 國號摩震 年號武泰元年(동상 효공왕 8년)

(차1)에 궁예가 청왕한 효공왕 5년(901)은 辛酉年으로 도참에서는 신유년을 혁명의 해로 생각한다고 한다. 그리고 (2)의 효공왕 8년은 申子年으로 그것은 六甲의 首位인만큼 도참에서 신비시하는 해라고 한다. 그렇다면 궁예가 신유년과 갑자년을 택하여 청왕하고 국호를 바꾼 것은 도참에 의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³⁷⁾ 이점에서 앞의 (가2)에 궁예가 '왕'자가 쓰인 점대를 받았다는 것은 궁예가 진국을 전후한 어느 시기에 만든 도참의 일종일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궁예가 연호를 水德萬歲로 한 것은 陰陽相生說에 따라 신라의 金德에 대해 水德을 내세운 것이라고 한다. 陰陽五行說은 풍수지리설의 기초가 되므로 궁예는 풍수지리설에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점에서

도 중복되고 있으므로, 양자가 관련성을 가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을 듯하다.”고 하면서 ((앞의 논문, p. 274의 주 16)) 궁예의 반신라적 성격과 진표계 미륵신앙의 반신라적 성격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앞의 논문, pp. 274~276)이 보다 정당한 파악이 아닌가 여겨진다.

한편 진표가 律師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계율을 중시하였음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지적되었다(그 연구들에 대해서는 이기백, 앞의 논문, pp. 273~274의 주 13)에 소개된 바를 참고). 그런데 앞의 (가3)에 따르면 궁예는 계율에 구애받지 않았다고 하므로 이점에서 궁예와 진표계 미륵신앙을 연결시키기 어렵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 신호철, 앞의 논문, p. 53. 하지만 궁예의 미륵신앙에 대한 관심이 종교적인 것이기도 하였지만 아울러 정치적인 것이기도 하였음을 고려하면 궁예가 계율에 구애받지 않았다는 것과 진표계 미륵신앙의 계율 중시를 상반되는 것만으로 이해할 필요는 없을 듯하다. 그리고 궁예가 본래 계율을 중시하는 화엄승이었을 것으로 생각되는만큼 궁예가 계율에 구애 받았었다는 것은 그가 僧俗 간에 폭넓은 인간 관계를 갖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도 여겨진다. 최규성, 앞의 논문, p. 290.

37) 이상 궁예와 도참설에 대해서는 이병도, 앞의 책, p. 201의 주 1) 및 2)를

(타) 弓商欲移都 到鐵原·芹壤 周覽山水(『삼국사기』 12 효공왕 7년)

한 것은 궁예가 풍수지리설에 따라 도읍지를 찾고 있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생각된다.³⁸⁾

이미 밝혀진 바와 같이 풍수지리설은 신라 하대 道詵을 비롯한 선종 승려들에 의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³⁹⁾ 따라서 궁예의 풍수지리설에 대한 이해는 그의 승려시절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시 세달사가 위치한 영월 지역은 굴산문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그리고 도참이 흔히 풍수지리와 결합하여 그를 소재로 하는 경우가 많았다⁴⁰⁾고 하므로 궁예가 도참설에 대해 알게 된 것 역시 승려시절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시 도참설이나 풍수지리설은 승려들에 있어 교양과도 같은 것이 아니었을까 여겨지므로 처음 궁예가 그에 대해 관심을 가진 것이 의식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을듯 싶다.

그런데 도참은 인간의 吉凶禍福·盛衰得失에 대한 예언 혹은 징조로서 주로 혼란기에 유행하며, 그것은 정치적 변혁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혹은 민심을 끌기 위해 조작되는 것이라고 한다.⁴¹⁾ 그렇다면 궁예가 도참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은 그가 진표계 미륵신앙에 매력을 느낀 것과 통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궁예는 자신이 직접 반신라적 세력을 규합하려고 하면서 그 방법의 하나로 도참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

참고하라. 이병도는 궁예를 “讖諱惑信者”라고 하였다.

38) 이상 궁예와 풍수지리설에 대해서는 최병헌, 「道詵의 生涯와 羅末麗初의 風水地理說—禪宗과 風水地理說의 關係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1, 1974, p. 146 을 보라.

39) 최병헌, 앞의 논문, pp. 114~120 및 pp. 133~138.

40) 이병도, 『高麗時代의 研究—특히 圖讖思想의 發展을 중심으로—』(개정판), 1980, p. 3. 그에 따르면 도참설과 풍수지리설의 관계는 “一而二, 二而一의 인나눌 수 없는 관계를 갖게 되었고, 동시에 그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가도 역시 그러하였다. 즉 도참가인 동시에 풍수가요, 풍수가인 동시에 도참가를 겸하였던 것이다.”라고 하고 있다.

41) 이병도, 앞의 책, p. 16 및 pp. 2~3.

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리고 풍수지리설도 도참설과 마찬가지로 人事의 길흉화복을 예언하는 것⁴²⁾이므로 그에 대한 궁예의 관심도 우선 도참설의 경우에 비추어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궁예가 풍수지리설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던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고 해야려진다.

(파1) 景福元年壬子(892) 投北原賊梁吉 吉善遇之 委任以事 遂分兵使東路地 於時 出宿雉岳山石南寺 行襲酒泉·奈城·鬱島·御珍等縣 皆降之(『삼국사기』 50 궁예전)

(2) 北原賊帥梁吉 遣其佐弓裔 領百餘騎 襲北原東部落及溟州管内酒泉等十餘郡縣 (『삼국사기』 11 眞聖女王 5년 10월)

위 (파1)·(파2)는 1년의 차이가 있다. 하지만 그것들은 같은 내용을 전하는 것으로 해야려진다. 우선 (파1)을 보면 양길은 처음 궁예에게 ‘委任以事’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2)에는 궁예가 양길의 ‘佐’였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궁예는 본래 양길의 참모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양길의 참모로서 궁예가 수행하였던 임무가 무엇이었던지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軍事와 관련된 것이 그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였을 것임은 쉽게 짐작이 된다. 그리고 그후 양길의 신임을 얻어 양길의 군대를 이끌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궁예는 군사적인 능력을 양길에게 인정받은 것이 된다. 실제 (파1)을 보면 궁예는 군사지휘관으로서도 상당한 능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궁예는 양길에게 가기 전 이미 일정한 수준 이상의 군사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것이다. 그런데 세달사를 떠나 기훤에게 간 것이 891년((가3))이므로 궁예가 기훤의 휘하에 있었던 것은 길게 잡아야 2년 정도가 된다((파1)). 더우기

(하) 箕萱侮慢不禮 善宗鬱悒不自安 潛結箕萱麾下元會·申煊等爲友(『삼국사기』 50 궁예전)

42) 이병도, 앞의 책, p. 3.

라고 한 것을 보면 궁예가 기원 밑에서 군사에 관한 것을 배울 수 있었으리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궁예의 군사적 능력 역시 그가 승려 시절에 익힌 것이 된다.

이와 관련하여 우선 당시 사원들이 거대한 莊園을 소유하고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僧軍을 두기도 하였다는 사실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⁴³⁾ 영주 지역에 장사를 둘 정도였던 세달사도 이와 다를 바 없었을 것으로 헤아려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궁예를 세달사 소속의 승군으로 보아 좋지 않을까.

하지만 본래 수도승이었던 궁예가 무예에 능했으리라고는 믿어지지 않는다. 이점에서 궁예는 오히려 승군 지휘관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앞의 (가3)에 궁예가 기상이 활발하고 담기가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궁예의 면모를 전하는 것으로 헤아려보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궁예가 승군을 지휘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궁금해진다.

이미 지적된 바이지만 신라 하대의 풍수지리설은 일면 실제 전쟁수행에 있어 전략적인 방편으로 이용되었다고 한다. 寶壤이 산적과 대치하고 있었던 왕건에게 그 지세에 따른 전략을 제공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그리고 도선이 왕건에게 ‘出師之陣’, ‘地理天時之法’ 등을 가르쳐주었다는 것도, 상징적이기는 하지만, 도선의 풍수지리설이 兵法이나 軍略의 의미도 갖게 되었음을 알려준다고 여겨진다.⁴⁴⁾

여기서 궁예가 세달사 승군의 지휘관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의 일단을 짐작할 수 있다. 궁예의 풍수지리설에 대한 이해가 일면 군사적인 것이 아니었을까 헤아려보는 것이다. 그리고 당시가 전쟁 중이었음을 고려하면 궁예가 송악에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기 위해 ‘周覽山川’하였다는 것(앞의

43) 李弘植, 「羅末의 戰亂과 緇軍」, 『史叢』 12-13 합, 1968; 『韓國古代史의 研究』, 1973, pp. 551~556 및 최병헌, 「신라하대 선종구산파의 성립」, pp. 105~112.

44) 보양에 대해서는 『삼국유사』 4 義解 寶壤梨木 條 참고. 도선에 대해서는 『고려사』 高麗世系에 인용된 閔漬의 『編年綱目』을 보라. 이상은 최병헌, 「도선의 생애와 나말여초의 풍수지리설」, pp. 145~146.

(타))도 기본적으로 전략적인 측면에서 철원의 지형과 지세를 살펴본 것이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다.

한편, 이미 후삼국시대의 혼란을 이용하여 기존 질서에 반항하려고 했던 궁예인만큼 그를 위해서는 군사적 지식이 필수적임을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점에서 궁예가 풍수지리설에 관심을 갖게 된 또다른 이유는 풍수지리설이 일면 전략적인 성격을 지녔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⁴⁵⁾

IV. 맺 음 말

이제까지 궁예의 출신과 승려로서의 궁예의 면모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것을 통해 알게 된 것들을 요약하는 것으로 결론에 대신하고자 한다.

중래에는 『삼국사기』 50 궁예전에 따라 궁예를 왕위계승전에 회생된 신라 왕자출신이라고 보아왔다. 하지만 궁예전에 나오는 궁예의 출신관계 기록을 검토한 결과 그것은 궁예나 그 측근에 의해 궁예의 반신라적행위를 합리화하는 한편 반신라적인 세력을 포섭하고 아울러 궁예에게 정통성과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 조작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리고 이점을 염두에 두고 관계기록을 다시 살펴본 결과 궁예는 사회경제적으로 몰락한 진골귀족 출신이었다고 여겨졌다.

다음으로는 궁예의 불교사상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궁예는 처음 화엄종 사원인 세달사에 출가하여 화엄에 몰두하였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것은 당시 그가 몰락한 자신의 처지에 대해 깊이 인식하지 못한 결과였다고 보았다.

하지만 자신의 처지를 깨달은 궁예는 이제 진표계 미륵신앙에 매력을 느끼게 되었던 것으로 해아려졌다. 왜냐하면 미륵신앙은 그 자체 현실개혁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이었으며 특히 진표계 미륵신앙은 반신라적인

45) 이와 같이 본다면 궁예는 세달사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아진다. 궁예의 세력형성과 전국에 대해서는 별고를 준비 중이다.

성향의 것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궁예는 미륵신앙을 이용하여 반신라적 세력을 규합하려고 했던 것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그를 위해 궁예는 도참설에도 관심을 가졌던 것으로 생각되었다. 궁예는 그것들을 이용하여 민심을 수습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했던 것으로 보았다. 아울러 궁예는 일면 군사전략과도 통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풍수지리설에도 상당한 이해를 갖고 있었는데 그것은 후에 궁예가 활발한 정복활동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헤아려졌다.